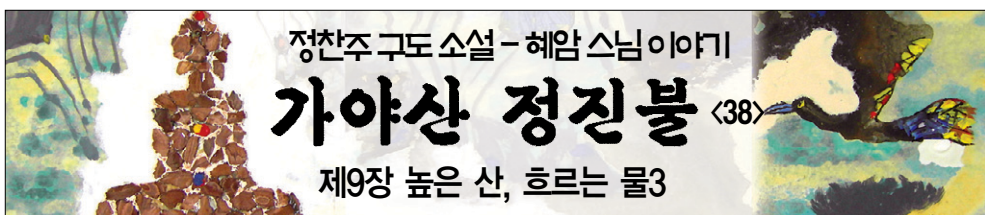


산 위에는 구름 지나가고 바위 밑은 물 흘러가는 소리 난다



해암은 주로 효봉, 동산, 경봉, 성철, 항곡 같은 고승들의 회상에서 인격을 닦아. 앞으로는 서울, 전강이 주석하는 절로 가서 자신이 정진하여 얻은 경지를 점검받으려고 했다. 그런 뒤, 상무주암 같은 지리산 깊은 산중의 토굴로 올라가 홀로 보일할 생각이었다.

서울은 누구보다도 해암과 인연이 깊은 선지식이었다. 해방 전 일본의 한 절에서 해암에게 <금강경> 한 권을 주면서 국내로 돌아가 '참선하라'고 권유했던 선사가 바로 서울이었던 것이다. 그런 까닭으로 해암의 뇌리 속에는 늘 서울 밑에서 정진해보겠다는 서원이 있었다.

서울은 도봉산 천축사에 머물고 있었다. 천축사 주지 정영(鄭映)이 우리나라 최초로 절 경내에 무문관을 세워 서울을 조실로 추대하였던 것이다. 무문관이란 부처가 정정각산 유영굴에서 6년 동안 고행한 끝에 정각을 이룬 바, 그 고행을 본받아 일정 기간 죽을 각오로 정진하는 수행처소를 뜻했다. 그러니까 달마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건너와 9년 면벽한 송산의 동굴도 무문관이냐 다름없었다.

때마침 서울을 조실로 추대한 도봉산 천축사 무문관에서는 20명의 수좌들이 2년 결사 중에 있었다. 결사한 수좌들 모두가 새벽 3시에 일어나 밤 12시까지 좌선하는 가행정진을 했다. 가행정진을 하다가 견디지 못하고 무문관을 떠나는 것은 수좌들의 근기와 사정에 따라 자유였다.

해암은 서울을 만나고 싶어 해인사를 떠나기로 작정했다. 은사 인곡이 입적하고 없으므로 이제 누구와도 상의할 사람이 없었다. 스스로 결정하고 무소의 뿔처럼 홀로 걸어갈 뿐이었다.

이따금 선방에서 천재한 수좌들이 격정할 뿐, 아무도 간섭하지 않았다.

"해암수좌, 무문관에 들어가려면 아주 건강해야 견딘다고 합니다."

"걱정해 주니 고맙습니다만 오대산에서 토굴살이를 이미 경험했으니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해암은 오대산의 다섯 암자와 설악산 오세암에서 무문관의 고행과 같은 수행을 많이 해보았으므로 전혀 부담이 되지 않았다.

"천축사 무문관 결사는 한 철이 아니라 2년이라고 하니 감옥과 같을 것입니다."

"2년이니, 6년이니 하고 숫자에 매달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해제할 때까지 자유가 없는 고행이니가 그렇지요."

"하루를 묵언해도 6년처럼 정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굳이 왜 천축사로 가려고 합니까?"

"서울 조실스님을 뵈려고 합니다. 저와 인연이 깊은 노장님입니다."

서울을 얘기하자 수좌가 화제를 돌렸다.

"서울 조실스님과 무슨 인연이 있다는 것입니까?"

흐르는 물소리가 속삭이듯 들렸다. 해암은 가야산에 폭설이 내려 며칠 동안 선방에서 나와 눈을 쓸던 기억들을 홀류동 물소리를 들으며 씻었다. 걷다가 뒤돌아보면 마음을 푸근하게 했던 선방의 기억들이 눈처럼 쌓였다가 기억 저편으로 사라지곤 했다.

서울 석호(西翁石虎).

1912년 충남 논산 출생으로 속명은 이상순(李尙純). 7세에 아버지를 잃고 고향에서 보통학교를 졸업한 뒤 14세에 서울로 올라가 17세에 양정고등보통학교에 진학했는데, 그해 어머니와 할아버지가 별세하자 큰 충격을 받았다. 훗날 스님은 '어린 나이에 하늘과 땅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막막했다'고 회고한 바 있다. 다행히 작은아버지의 도움으로 학업은 계속할 수 있었다.

당시 양정고등보통학교에는 무교회주의자 김교신 선생과 위암 장지연 선생이 근무하고 있었다. 스님은 김교신 선생으로부터 간디 자서전을 추천받아 읽고는 감명을 받았다. 간디의 자서전을 읽다가 불교의 참맛을 알았고, 결국 머리를 깎기로 결심했다.

학교 담임선생과 작은아버지가 우등생으로 졸업한 스님이 경성제대 예과에 진학하기를 바랐지만, 스님은 21세에 중앙불교전문학교에 입학했고 출가하기 위해 각황사(현 조계사로) 가서 주지 대운을 만났다. 그러나 대운은 백양사에 주석하고 있는 비구선승 만암의 제자가 될 것을 권유했다.

스님은 24세에 중앙불교전문학교를 졸업하고 백양사로 내려가 강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외전강사로 2년을 보냈다. 26세에는 참선 공부와 하고자 오대산 한암 회상으로 가서 2년간 정진했다. 그런 뒤 수행자 신분으로 1939년 28세에 일본 교토 임제대학에서 공부하기 위해 유학을 떠났다.

스님의 대학 졸업논문 <진실자기(眞實自己)>는 일본 불교학자 다나베 하지메가 쓴 <정법안장의 철학적 사관>의 오류를 지적하여 화제를 불러 일으켰다. 일본의 대학자인 경도대학의 히사마츠 신이치 박사의 지도로 쓴 <절대주체도>는 학생들의 교재로 채택되기도 했는데, 스님은 일요일마다 히사마츠 박사를 만나 다담을 나누며 토론하는 정복을 누렸다.

임제대학을 졸업한 스님은 일본 임제종 총본산인 묘심사(妙心寺)에서 3년 간 입승 스임을 보면서 정진하였는데, 이때 자신을 찾아온 해암에게 <금강경> 한 권을 주었다.

스님은 1944년 34세에 귀국하여 백양사 선방과 목포 정혜원을 거쳐 부산 선암사 선방에서 정진하던 중, 통영 안장사 천재굴로가 성철을 처음으로 만나 동갑지기 도반이 되었다.

성철과 마음을 나눈 스님은 20여 년 동안 전국을 만행하며 선방수행을 하다가 1962년 51세에 동국대 대학선원 선원장으로, 1964년 53세에 천축사 무문관 조실로 추대되어 수좌들과 2년 결사에 들어갔다.



그림 · 최문정

산 위에는 구름이 지나가고 바위 밑에는 물 흘러가는 소리가 난다 >

서울과 오래 된 인연 말고도 출가하기 위해 고향집에서 처음으로 들었던 백양사(白陽寺)에 감회가 더 무량했을 터였다. 방장추대식의 축사 속에는 백양사의 단풍을 찬탄하는 구절에 이르러 다소 들뜬 해암의 심정이 드러났고, 사부대중의 축하는 물론이고 산과 물, 그리고 미물들이 기뻐 춤추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은 고불총림 방장이 된 뒤 중국 임제선사의 무위인(無位眞人) 가풍을 '참사람 결사'로 지속시키는 한편, 승속이 운집하여 고승을 향해 공개리에 법을 묻는 무차선대회도 열었다.

그때 해암과 진제도 무차선대회에 참석하여 수좌들과 재가불자들이 묻는 질문에 조사선의 종지를 여실히 밝혔다.

1964년, 정영이 천축사 동쪽 미륵봉 아래 무문관을 개설하자 그 반장은 뜨거웠다.

전국 선방의 수좌들이 서울 조실 밑으로 모여들었다. 해암은 서울의 허락을 받고 나서 1966년 여름에 무문관에 들었다. 그러나 결코 결사에 동참한 것은 아니었다. 자신은 어디에서나 무문관에 입실한 것처럼 고행해 왔기 때문이었다.

무문관에 입실한다고 해서 모두가 해제할 때까지 남지는 않았다. 대부분 중도에 탈락했다.

2년 결사의 경우, 해제 때는 두세 명 정도 남는 것이 고작이었다. 어떤 이는 한 달 만에 목연의 후유증으로 허가 굳어 나오오는 사람도 있고, 정신이 이상해져서 병원으로 실려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가 하면 한 소식을 체할한 고마움에 목이 메어 흐느끼는 사람도 있었다.

해암은 무문관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거뜬하게 여름을 보냈다. 서울은 수좌들을 만날 때마다 '한번 법을 알려 보게' 혹은 '좀 더 알려 보게' 하고 물었지만 해암은 예외였다. 오래 전부터 이신전심으로 제할 되는 비가 적지 않았던 것이다.

<계속>

“ 추대식을 하게 되니 사회대중과 사부대중이 축하하며 동시에 산도 춤추듯 기뻐하고 물도 소리치며... 모두 함께 경축합니다 ”

활을 한다.

둘째, 어디에도 걸림 없이 자유자재하여 세계인류가 평등하고 평화스럽게 사는 세상을 창조한다.

셋째, 자기와 인류가 생물과 우주 영원의 유일 생명체이면서 각각 별개이므로 서로 존중하고 도와서 집착함이 없이 진실하게 알고 바르게 행하며 이름 다음을 사랑하는 세계를 건설한다.

서울이 고불총림방장으로 주석하자, 가장 반긴 스님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당시 해인총림 방장이었던 해암이었다. 자신을 불문으로 이끌어준 선승, 서울이 주석하는 백양사가 고불총림으로 승격되었고, 자신과 좋은 인연을 맺어왔던 서울 선사가 방장으로 추대되는 경사였던 것이다.

해암은 가을 단풍이 절정으로 치달고 있는 백양사로 달려가 방장추대식 자리에서 다음과 같이 축사를 했다.

<여름 삼복이 찌는 듯한 더위의 시절이 지나가고 호시절 가을이 오니 만산단풍이 방광을 하고 삼삼(三三)은 원래 구(九)입니다.

산명 수려한 백양사는 내장사와 같이 추색 단풍이 절경이어서 주변 일대 전폭(全幅)이 그림이라 하겠고, 계류 물결과 풍치는 진세(塵世)를 초탈한 멋진 풍경이며, 밝은 달과 바람이 어울리고 산색과 수성(水聲)이 조화를 이루었으니 이를 일러 물외건곤(物外乾坤)이요, 호중천지(壺中天)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도량에 특히 다수의 선지식이 출현하였고, 만암 스님께서 해방 직후 불교발전을 위하여 호남고불총림을 창립하시어 전국 모범사찰로 유지하다가 육이오동란을 당하여 잠시 휴종(휴종)하여 근간에 부활해서 오늘 뜻 깊은 총림방장 추대식을 하게 되니 사회대중과 사부대중이 축하하며 동시에 산도 춤추듯 기뻐하고, 물도 기뻐 소리치며, 벌 나비 춤추고 새들과 꼬꼬닭도 강강경경 짙는 게들도 모두 함께 추대식을 경축합니다.

본래무일물(本來無一物)인데 무엇이 추대식입니까(如何是 推戴式). 오늘 추대식을 했다 하여도 참으로 옳지 못한 것이요, 설령 안 하였다 하더라도 참으로 옳지 못한 것입니다. 이러한 때를 당하여 사회대중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해암은 서울 스님과 지중한 인연을 회상하며 해인사를 떠나기로 작정 서울 스님이 고불총림 방장추대될때 백양사 달려가 들뜬 마음으로 축사

"제가 출가하려고 해인사에 왔을 무렵 행자를 받지 않는다고 하여 이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은사 인곡스님을 소개해 주었던 분입니다."

일본 임제종 총본산 묘심사에서는 해암에게 발심의 불을 지피 주었고, 해인사에서는 인곡을 소개한 일까지 합한다면 결코 작은 인연이 아니었다. 귀한 비단에 아름다운 꽃을 엮히는 지중한 인연이었다.

"서울스님 회상에서 정진하고자 떠난다면 할 수 없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제가 천축사로 가는 것은 무문관 때문이 아니라 서울스님이 계시니까 가는 것입니다."

해암은 발걸음을 막던 수좌와 함께 웃었다. 홀류동에 일어났던 일들이 벌써 녹고 있었다.

1971년에는 동화사 조실로 주석했는데, 그때 스님은 오도송을 읊조렸다.

상왕은 위엄을 떨치며 소리치고 사자는 울부짖으니 번쩍이는 번갯불 가운데서 사와 정을 분별하도다 맑은 바람이 능글하게 하늘과 땅을 떨치는데 백암산을 거꾸로 타고 겹겹의 관문을 벗어나도다.

이후 스님은 1974년 63세에 조계종 제5대 종정에 올랐고, 1996년 85세에 백양사 고불총림 방장으로 추대되고 나서는 수좌들에게 <백암록>의 선지(禪旨)를 강설하며 '참사람 결사'를 제정했다. 참사람 결사의 서원은 세 가지였다.

첫째, 무상무주(無相無住)의 참나를 깨달아 자비생

공부하다 죽어라

조계종 제10대 종정 해암 대종사의 선기가 살아 있는 수행 도량 원당암에서 '성불'의 길을 닦아 보십시오. 재가자 선수행의 중심도량 원당암은 영가단에 만년위패를 모신으로써 생사가 둘 아닌 도리 속에서 열반적정을 이루는 수승한 원력의 도량입니다.

정진 안내

- 철야 용맹정진 매월 1, 3주 토요일 오후 7시 ~ 새벽 3시
- 동안 거결제 음력 10월 15일 ~ 1월 15일
- 산 철결제 음력 2월 1일 ~ 3월 29일 / 음력 8월 1일 ~ 9월 30일
- 만년위패봉안대불사 합동천도제
매년 설날, 중앙절(음력 9월 9일), 백중, 추석, 매월 음력 15일(아미타재일)

해인사 원당암 |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10번지 www.wondangam.org
 강원 벽산 원각 | 전화 055)932-7308 / 팩스 055)931-7515